

효성을 팔아버린 다시마장사군

안 춘 옥

옛날 바다가마을에 광쇠라는 다시마장사군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모를 모시고있던 누이로부터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몸이 편치 않으니 그 치료에 좋은 다시마를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광쇠는 금방 받아놓은 다시마들을 저울로 한근두근 뜨면서 리득금을 타산해보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파는 다시마를 가지고 오라고 할건 뭐람.》

광쇠는 생각다못해 다시마를 팔면서 가다가 한 뒤근 남겨 가져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마짐을 꾸쳐가지고 싸구려를 부르며 이 동네 저 동네 헤맸습니다.

생각보다 다시마가 잘 팔려 잠간사이에 한짐 되는 다시마를 다 판 그가 어머니한테 가져갈 다시마 두근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설 때였습니다.

웬 아낙네가 불쑥 나타나서 다시마를 사자고 막무가내로 달라붙었습니다.

《이젠 다 팔았수다.》

《이건 뭐나요?》

《이건 내가 요긴하게 쓸거우다.》

광쇠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뭘 그러슈. 다시마장사군이야 또 넘겨받으면 될게 아니유. 얼른 주시우.》

그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광쇠는 다시마 두근을 만지

작거리다가 훌 팔아버리고말았습니다.

(까짓거 오늘 당장 급한것도 아닌데 어머니한테 다음번에 가져다드리면 되지.)

불어나는 돈주머니를 매만지며 기쁨을 금치 못하던 광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을 구하러 갔다 돌아오는 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광쇠는 와찝 놀랐습니다.

누이는 반기며 물었습니다.

《다시마는 가지고왔겠지?》

《낮도 모르는 아낙네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그만...》

《팔아버렸니?》

누이의 낫빛은 대번에 새파래졌습니다.

《내 인차 구해올게요.》

광쇠는 부랴부랴 달려가 이 집 저 집의 대문을 두드리며 다시마를 사자고 애걸했습니다.

동네아낙네들은 도무지 다시마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집만에 겨우 사정하여 뒤근 되나마나하게 장만한 광쇠는 한숨을 쉬며 누이가 기다리고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나이지숙한 녀인이 또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마침 만났구려, 다시마를 좀 사자요.》

《다 팔고 없수다.》

《거 손에 들고있는건 뭐나요?》

《내가 쓸거지요.》

《야, 사정 좀 봐주구려. 고혈압에 쓰려고 그래요. 내 돈

을 곱으로 드릴테니 좀 팔아주세요.》

(오늘은 다시마 먹는 날인가?)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바람에 꺾쇠는 또 다시마를 팔아버리고말았습니다.

빈손으로 나타나는 꺾쇠를 보고 누이가 물었습니다.

《다시마는?》

《구해가지고 오됐는데 그만...》

《또 팔아버렸냐? 》

누이는 동생의 처사에 이번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곱으로 돈을 주겠다는 바람에...》

《너도 사람이냐? 앓는 어머니 병치료에 쓰자고 하는데 돈 몇푼이 그리도 귀해서 팔아버린단 말이냐? 넌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다. 네 갈데로 가라.》

누이는 핵 돌아섰습니다.

《누이, 날 용서해주시우. 내가 효성이 부족하다보니 그만...》

《효성이 부족한게 아니라 효성을 팔아먹었지.》

누이의 그 말은 꺾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 돈때문에 어머니도 잃고 누이도 잃는구나.)

꺾쇠는 주저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